

# 축농증의 한방요법

김 용 동\*

## 1. 코의 형태, 생리 및 병리

코는 사람의 얼굴 한가운데 자리잡아 콧대, 콧날개, 콧구멍으로 구분되며 코속으로는 비강, 부비강(전두동, 상악동, 사골동, 접형골동 등)으로 나누어져 인두, 후두, 기관지 및 폐장에 연결되는 것이다.

코는 호흡작용과 취각작용을 담당하여 인체의 건강을 지킨다. 냄새를 맡는 취각을 통하여 좋은 공기와 음식물을 취사선택함으로써 입과 위장은 하루 세끼의 식사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체내의 영양공급이 충족하여지고 특히 코는 폐장 심장에 연결하여 단일초라도 설새없이 호흡과 박동을 계속하는 것이 생명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코는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태가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되는 기관이라고 한다. 한문옥편에 찾아보면 가장 윗조상을 비조(코비, 조상조)라고 하듯이 오장육부 십이경락의 시작이 수태음 폐경에서 시작하고 족혈음 간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코는 외관의 으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코의 호흡이 정지하면 사람은 죽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 중앙이니 중앙은 토로서 비위와 통하고 호흡은 폐에 통하며 취각은 간과도 연관된다.

병원인으로 보아 코병은 비풍열을결이나 혹은 폐열담울열이라고도 생각되어 그렇게 처방하기도 한다.

병증으로는 비건조, 육혈(코피), 코알레르기, 비중격 만곡증, 딸기코, 비창, 비종양 혹은 비암, 등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

고 할 수 있는 것은 비후성비염과 부비강 축농증이라고 할 것이다.

원래 코구멍의 점막도 입안 점막과 마찬가지로 대장균, 스타피로코커스, 기타 잡균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고 편두선과 마찬가지로 찬바람을 싫어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코를 막는 비후성이나 비용이 생겨난다고 본다.

그렇다면 축농증이나 비용도 체질, 즉 한방 사상의학 주장학설이나 풍·한·서·습·조·화의 6기나 자연환경 오염공기나 생활 체위 습성 등 여러가지 원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학은 이비인후과에서는 비강속의 고름만 긁어내는 수술만능식이 아닌가 싶다. 보다 정신신체의학(사이코소마틱)적이고 종합적인 한방의학에서는 체질개선을 위하여 나쁜습성이나 체위, 음식물의 선택개선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인 코의 풍습열을 퇴치 시킬 수 있다고 본다.

## 2. 코병의 원인에 따른 한의학적 분류

가) 내상 코병 ..... 양허 혹은 음허

나) 외감 코병 ..... 비·폐·담의 열증

비·폐·담의 한증

이는 풍·한·서·습·조·화, 환경공기오염 등에 기인함.

(1) 비건조, 소양증, 코피, 딸기코 등은 음허화동으로 인한 두열하한이니 태음인 체질의 습열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처방은 갈근탕, 청폐탕, 방풍통성산, 등

(2) 코 알레르기(재채기 콧물) 위축성비염 비용(비치) 등은 대개 두한하열이니 온폐보비 하여야 한다.

처방은 온폐탕, 보중익기탕, 가미 오적산 등

(3) 담열증…… 두중 두통과 입이 쓰고 복만한 것으로 족소양 담경열이니 코감기가 오래되고 비후성비염 축농증이 여기 해당되며 처방은 황금탕 이택통기탕, 청상사화탕, 신이백지청폐탕이 좋음.

(4) 비후성비염, 비치에 코에 넣은 약 제조 처방

외기 찬바람을 방어하기 위하여 비강내 하비갑개가 팽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자는 이에 “노사산”을 쓴다.

노사산 처방…… 명반 1냥, 감수, 과제, 초오회, 건강초흑, 세신 각 2돈, 사향약간, 세말하여 바세린에 개여 숨심지를 맡아서 약을 한 쪽면에 바르고 약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4센티 정도 깊이로 넣는다.

축농증 배농산 처방…… 황구(누른색 개) 두 개골을 태워서 잿가루 3냥, 거머리 30마리, 감수, 과제, 세신, 초오회, 건강초흑 각 3돈, 사향 약간을 세말하여 숨심지 한쪽에 발라서 약바른쪽이 얼굴바깥을 향하도록 4센티 깊이로 넣되 매일 1회 코구멍에 교대로 넣는다.